한의약人

복합추출 기술과 과학적 검증으로 만든 한방화장품,
한의약 산업의 내일을 열다

하니코스메틱(Haany Cosmetic) 센터장
대구한의대학교 박진한 교수

한방화장품은 한의약의 뛰어난 기능성과 K-뷰티의 성장과 함께 해외에 한의약의 우수함을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그 간 쌓아온 우수한 한의약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 및 제조 기업 '하니코스메틱(Haany Cosmetic)'을 설립하고 한방화장품 브랜드 '자안(JAAN)'을 선보이며 한의약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하니코스메틱 센터장이자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진한 교수를 만나 한방화장품의 개발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박진한입니다. 한약 소재를 활용해 한의학의 전통 원리와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피부 건강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학교기업인 하니 코스메틱 센터장을 맡아 한방화장품 브랜드 '자안(JAAN)'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가진 치유력과 과학적 근거를 결합해 피부 본연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니코스메틱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설립한 화장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하니코스메틱은 2024년 7월 설립된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기업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역에 뿌리를 둔 학교인 만큼 지역의 기업들과 상생하면서 학교의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기업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하니코스메틱은 현재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소속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상품기획부터 개발, 제조, 생산, 판매,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화장품 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니코스메틱의 화장품 브랜드, 자안(JAAN)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안은 대구한의대학교가 보유한 한의약 연구 역량과 하니코스메틱의 기술력, 그리고 한방의 전통적 가치를 융합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자안(慈顔)'은 사랑스러운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은 행복을 상징하며 행복은 곧 건강입니다. 단순한 피부의 빛남이나 미용이 아닌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답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자안의 모든 제품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만듭니다.

자안은 피부 본연의 힘을 회복시키는 스킨케어 중심 브랜드입니다. 대표 제품은 '혜율(Hyeyul)' 라인으로, 호장근, 산초나무, 측백나무 등 전통 한약재 복합 추출물과 해양추출물이 어우러져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식물성 캘러스 배양 추출물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발효 추출물과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하고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 주며 미백과 주름 개선의 이중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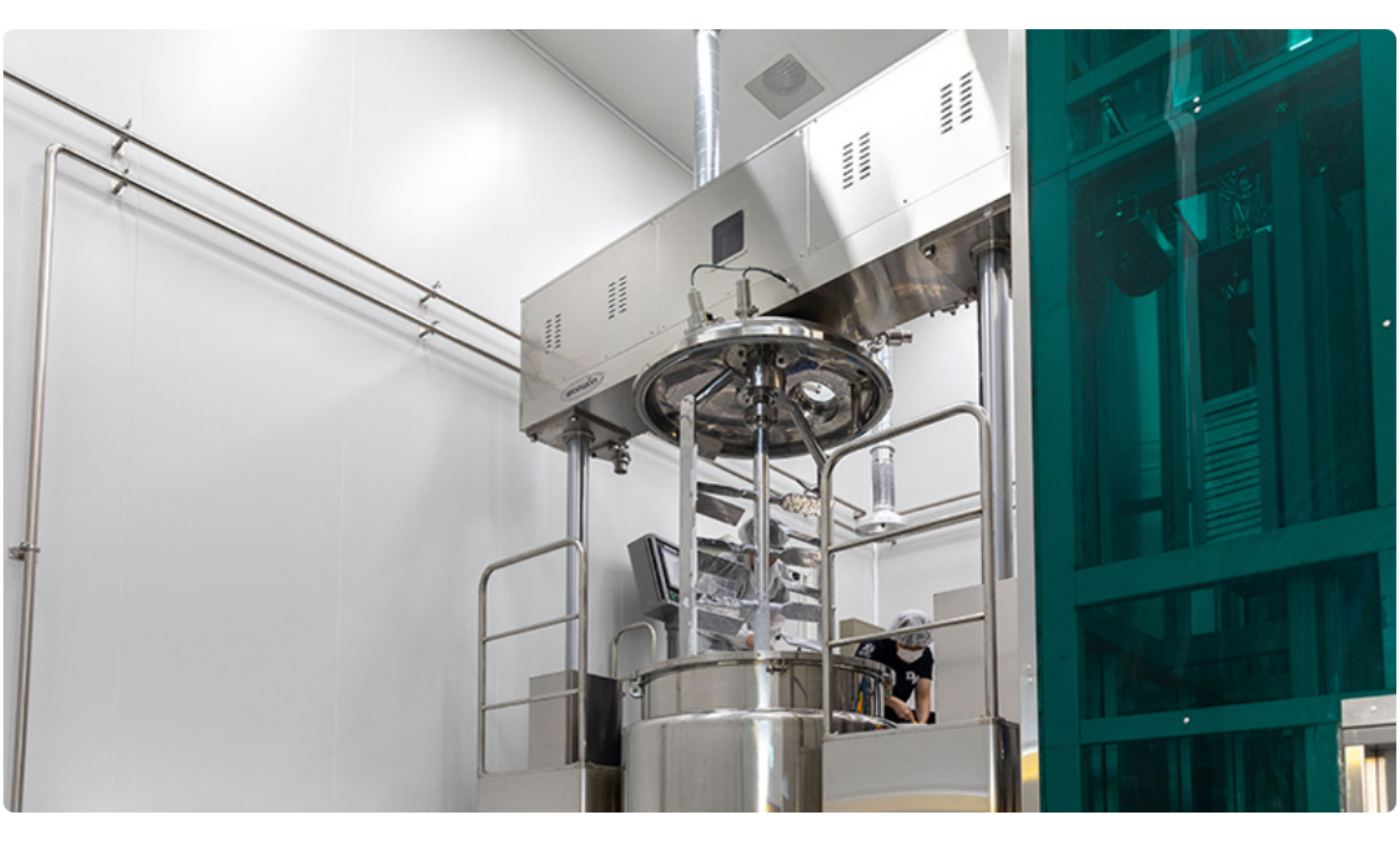
한의약 원료 화장품 브랜드로서 자안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안의 가장 큰 강점은 한의학 기반의 복합추출 기술과 과학적 검증 시스템입니다. 단일 성분 중심의 일반 화장품과 달리, 자안은 여러 한방 원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형 안정성, 흡수율, 향과 질감까지 세심하게 조율하여, 한방화장품 특유의 무거움 대신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주요 고객층은 30대 이상의 여성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의약에 대해 거부감이 낮고 피부 문제에 대해 한의약이 가지는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안의 제품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화장품학과와 하니코스메틱 R&D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피부 장벽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수십 종의 약재를 선별하며, 그 중 제품 목적에 맞는 유망한 한약재의 추출물을 만들고 R&D를 진행합니다. R&D 결과를 바탕으로 항산화, 진정, 보습 등 자안 제품의 목표에 적합한 주요 유효 성분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으로서 이 과정을 총괄하고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과 제조 과정에는 대구한의대학교 학생들의 노력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제로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 완성도가 높은 아이디어는 채택되어 제품 개발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니코스메틱 제품의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도 대구한의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하니코스메틱의 센터장도 겸임하시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시겠어요.

사실 교수로서의 업무와 기업 경영을 동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생기는 지점도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잘 경영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로서의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완전히 전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니코스메틱은 학교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지역의 강소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지만 이익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두와 상생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하니코스메틱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이자 센터장으로서 균형감을 잘 잡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자안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출시 이후 자안은 '피부가 편안해 진다', '자연스러운 한방 향이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여성 소비자층에서 보습감과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및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안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제품은 어떤 제품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안의 목표는 '글로벌 한방화장품 브랜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포장과 지속 가능한 한약재 공급망을 구축하여 'K-뷰티(Beauty)'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신설한 '하이브리드(HYBIRD) 화장품연구소'에서 중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등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선보일 자안의 제품들도 글로벌 공동연구로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의 녹차, 베트남의 어성초, 태국의 유칼립투스, 몽골의 육종용, 중국의 중국인삼 등 협력국가의 약재와 한약재를 혼합한 추출물을 활용해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소비자들에 맞게 화장품을 현지화한다면 세계적 브랜드로 자안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약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을 하신다면?

한의약 산업화의 핵심은 '전통의 과학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효능 분석과 소비자 중심 설계를 병행하고,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안 브랜드의 성장은 한의학이 단지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와 하니코스메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 여정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처럼 한방화장품의 세계화를 향한 든든한 첫걸음이 되고자 합니다.